

북미회담 장소 '상그릴라 호텔' 유력

싱가포르 정부 10~14일 인근 지역 '특별행사구역' 지정

싱가포르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상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호텔이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회의의 유치 경험이 풍부하고 경호와 보안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그릴라 호텔은 그동안 현지 언론이 가장 유력한 회담장 후보지로 꼽아온 곳이다. 싱가포르 본섬 한 북쪽에 있는 이 호텔은 전 세계에 95개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한 다국적 호텔 기업 '상그릴라 호텔 앤드 리조트'사가 1971년 4월에 문을 연 첫 번째 호텔로 74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제2의 보타닉 가든'으로 불리는 15에이커(약 6만700㎡) 규모의 정원과 1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볼룸 등 다수의 연회장, 정상급 인사의 숙소로 활용될 수 있는 348㎡ 크기의 최고급 스위트룸도 있다.

국제회의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춰 실제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국제회의장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2년 출범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아시아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가 매년 이곳에서 열린다. 올해도 지난 1~3일 17차 회의가



북미정상회담 어디서 열릴까
일 교통통신은 센토사섬을 미 워싱턴포스트는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을 회담 장소로 결정한 것 같다고 보도. 싱가포르 언론들은 상그릴라 호텔이 더 적합하다고 보도.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 경찰차가 서 있는 모습.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후 한반도 문제가 상그릴라 대화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당국자와 안보전문가들은 매년 이 곳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호텔은 역사적인 양안(兩岸) 갈등 중재 장소로도 유명하다. 2015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이 바로 이 곳에서 열렸다. 1949년 중국과 대만이 분단된 이후 66년 만에 만난 양안 정상은 당시 이 호텔에서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의 평화적 발전 방향을 논했고 화려한 설치에도 합의했다.

이 호텔 정원에는 오솔길 옆으로 갖가지 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고, 오솔길 끝에는 '오키드 그린하우스'로 명명된 목조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바구니 모양을 한 오두막 형태의 이 건축물 안쪽은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난(蘭)으로 장식돼 있다. 오두막 안에는 최대 4명이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돼 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호텔이 회담장으로 결정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오솔길을 걸은 뒤 오두막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35〉명장 가서한

가서한(哥舒翰, ?~757)은 투르크족 가서부 출신으로 토번전에서 여러번 공을 세웠다. 안녹산의 난때 동관을 지키다가 패해 낙양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안서(安西) 지방에 살았다. 40세 전후로 하서절도사 왕충사의 휘하 무장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747년 왕충사의 명을 받아 토번 공략의 책임을 맡았는데 휘하의 부장이 거만하게 굴자 채찍으로 때려 살해하니 군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 차례 공을 세워 농우절도부사가 되었다. 매년 보리가 익을 때면 토번군이 와 약탈해 갔는데 그가 부임하자 두려워 감히 약탈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왕충사가 재상 이임보의 모함으로 투옥되자 농우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왕충사가

공질을 잃고 장안에 은퇴하였는데 755년 안녹산이 거병했다. 낙양을 돌파하고 장안을 향해 서진하자 현종은 그를 불러 병마부원수를 제수해 병사 8만을 거느리고 토벌토록 하였다. 병이 들어 일을 처리할 수 없어 행군사마 전랑구에게 모든 군정을 위임하였다. 전랑구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왕사래가 기병을 이승만이 보병을 맡도록 하니 군대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다. 장군 고선지와 봉상정이 낙양성 방어에 실패한 후 동관으로 옮겨 방어에 나섰다. 환관 변령성이 황제에게 왜군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그가 전권을 위임받았다. 안녹산의 아들 안경서가 쳐들어오자 이를 물리쳤다. 호부상서 안사순과 사이가 나뉘었는데 안녹산과 서로 내통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처벌토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재상 양국충과 사이가 틀어졌다.

투르크족 출신...안녹산에 저 처형

국문을 받아 주변 사람들이 재물을 써 구제토록 권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 바를 도가 아직도 있다면 왕궁은 반드시 억울하게 죽지 않을 것이며, 만일 장차 그가 죽게 될 것이라면 많은 뇌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49년 6만여 군대를 이끌고 청해성 황원현의 석보성을 공격했다. 3면이 험한 절벽으로 쌓여 성으로 오르는데 오직 한 길 밖에 없었다. 오랜기간 공략에 나서 결국 성을 함락시켰다. 황제가 양귀비를 총애해 친척으로써인 양국충을 중용하였다. 그는 양국충과 힘을 합쳐 이임보의 권력을 견제하였다. 범양절도사 안녹산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커졌는데 황제는 그들이 가깝게 지내기를 희망했다. 안녹산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호족이고 어머니는 돌궐족인데 공의 아버지는 돌궐족이고 어머니는 호족이다. 종족이 그와 같으니 어찌 친할 수 없겠는가?" 그가 답하였다. "열사람이 말하기를 여유가 골을 향해 쫓으면 불길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향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친함을 보이면 제가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안녹산이 대노해 둘 사이의 원한이 깊어졌다. 재상 양국충은 안녹산을 견제하려고 그에게 하서절도사를 겸직토록 하고 서평군왕의 작위를 내리도록 하였다.

그는 동관이 천하의 요새라는 점을 활용해 굳건히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양국충의 측근이 "지금 조정의 군대는 모두 가서한의 수중에 있는데 그가 마음을 달리하면 공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라고 고자질했다. 가서한의 군권을 두려워하던 양국충은 황제에게 동관을 지키지말고 낙양을 회복토록 주청하였다. 그가 주문을 올려 "적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신속히 싸우는 것을 이익으로 알고 있으며, 관군은 험준한 곳을 점거해 그들을 누르니, 굳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먼 사수가 아직도 모이지 않았으니 청컨대 기다리십시오." 양국충이 역적으로 이 방비가 없는데 가서한이 지체하던 장차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황제가 그렇다고 생각해 사신을 파견해 싸울 것을 재촉했다. 통곡하고 군사를 이끌고 동관을 나갔다. 결국 안녹산군에 대패하고 낙양으로 압송되었다. 안녹산은 이광필, 노경 등 장군들에게 편지를 써 회유토록 하였다. 그러나 제장들은 회담하는 서한에서 그의 불충을 나무랐다. 안녹산은 효과가 없음을 알자 그를 감금하였다. 757년 관군의 공격을 받아 낙양을 지키던 안경서가 하북으로 달아났는데 당의 장수인 가서한과 정천호 등 30여명을 죽였다. 명장의 허무한 최후였다.

과테말라 화산 폭발

최소 25명 사망·20명 부상

중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3일(현지시간) 폭발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44km 거리에 있는 푸에고 화산은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했으며, 인근 마을은 검은 화산재와 연기로 뒤덮였다. 현지 TV 방송 영상에는 용암류가 집들에 닿아 새까맣게 탄 풍경이 포착됐다.

과테말라 재난당국 대변인은 당초 사망자를 7명으로 집계했으나 산미구엘 로스 로테스에서 시신 18구가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실종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 수는 현재 최소 20명으로 파악됐다.

재난당국은 인근 지역에서 3100명이 대피했으며, 이번 화산 분출은 170만 명이 사는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구호대와 소방대원, 경찰, 군 병력이 현장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이 폭발한 3일(현지시간) 화산 인근 마을에서 군인이 화산재를 뒤집어쓴 어린이를 구조하고 있다. 푸에고 화산 폭발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원룸 매매 [상가원룸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1층 ★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6개) (합 16개) 월세 580만 ▶ 매가 8억2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5백 월 33만

▶ 시세 1억3천
매가 7천5백만

-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19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만
-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왕동 (초역세권 토지) 승탄역 (보.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 ④ 평택 죽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승탄역, 친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

상가 건물매매

북구 용봉동 우미A.P.T
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보 1억6천 만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① 평택 투자 하실분
- ② 부동산 공동투자하실분

※ 연 20% 수익보장 (설정가능)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p>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평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p> <p>3) 화산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평가 37억 → 최저가11억</p> <p>4) 서구 금로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 감평가 6억 → 최저가 3억3천</p>	<p>1) 서구 매월동 348평 유동단지 인근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9억5천</p> <p>2) 북구 문흥동 토 378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p> <p>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평가 1억2천 → 최저가 7천9백</p> <p>4) 나주시 송월동 17평 상집지 ▶ 감평가 8억4천5백 → 최저가 4억7천</p> <p>5) 장성군 장성읍 90,910평 ▶ 감평가 5억4천 → 최저가 3억</p> <p>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p>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 매매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p>① 서구 금로동 7층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3억9천만</p> <p>② 남구 백운동 빌라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p> <p>③ 북구 신안동 (6층 숙박시설)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4억9천</p> <p>④ 북구 용봉동 (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p> <p>⑤ 남구 주월동 (미토)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p>	<p>① 남구 봉선동 상이파트 (34평) 감평가 2억4천만 → 최저가 1억2천</p> <p>② 남구 봉선동 대일파트 (64평) 시세 10억 → 최저가 8억6천</p> <p>③ 남구 진월동 현대파트 (40평)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p> <p>④ 북구 신안동 상이파트 (34평) 감평가 1억3천만 → 최저가 9천만</p> <p>⑤ 서구 차령동 마주파트 (22평) 시세 1억2천 → 최저가 1억2천</p>	<p>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만</p> <p>② 광산구 신왕동 부영아파트(34평) 시세2억 1천 → 최저가 1억4천</p> <p>③ 광산구 오성동 공평동 500평 건 500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7억 9천</p> <p>④ 광산구 월동동 공평동 2000평 건 2000평 감평가 88억 → 최저가 4억</p> <p>⑤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22평 감평가 2억9천만 → 최저가 1억9천</p>

010-7384-7800 010-6670-9800